

## 코로나19 재확산 '초비상'

봄 맞아 이동·관광객 늘면서 감염 우려 커져  
 잇따른 관광객 확산에 병원 코호트 격리까지  
 종합병원서 일한 도민 확진 '동일집단' 격리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연일 코로나 19에 확진되면서 방역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행객 증가로 제주관광산업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지만 늘어나는 확진자에 방역당국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도내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도민이 확진돼 동일집단(코호트) 격리까지 이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일부터 8일 사이 6명(640-645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확진자 6명 중 640-642번은 전날도 방역당국에 의해 공개된 감염자이다.  
 나머지 3명 중 644번과 645번은 간밤 사이 나타난 추가 확진자로 제주에 여행 온 관광객이며, 마지막 1명은 8일 오후 확진된 도민이다.  
 643번과 644번은 가족 사이로 또 다른 가족 2명과 함께 지난 4일 제주에 여행을 왔다. 이들은 제주 관광에 나선지 사흘째인 지난 7일 서울 중랑

구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알게돼 이날 검사를 받았다. 643번은 지난 7일부터 미열 증상이 나타났으며 644번은 증상이 없다. 643-644번과 함께 제주에 온 나머지 가족 2명은 음성으로 판정됐지만 잠복기를 고려해 도내 모 시설에 격리됐다.  
 관광객 감염 사례는 전날에도 있었다. 지난 6일 제주에 여행을 온 각각 다른 관광객 3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들어 7일 간 나타난 코로나19 확진자 12명 중 11명이 관광객이거나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다.  
 도 관계자는 "감염재생산지수(확진자 1명이 몇 명을 더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지수)를 1이하로 떨어뜨려야 안정적인데 봄철을 맞아 이동량과 제주 관광객이 늘다보니 감염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이날 들어 지난 7일까지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23만7172명으로 지난해 같



갯마을 활짝 핀 송악산둘레길 산과 들녘에서 봄기운 가득 머금은 아생화들이 화사한 모습으로 만물을 유혹한다. 화창한 날씨가 이어진 8일 갯마을꽃이 활짝 핀 송악산둘레길을 찾은 탐방객들이 봄기운을 만끽하며 산책을 즐기고 있다.

### 주말까지 완연한 봄... 산지·동부 건조특보

10일까지 포근한 날씨 계속

제주주 주말까지 완연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겠다.

8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0일까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다. 기온도 9일 아침 최저기온은 9~11℃, 낮 최고기온은 16~18℃, 10일도

아침 최저기온은 11~12℃, 낮 최고기온은 16~18℃로 따뜻할 전망이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다소 커 건강 관리에는 주의를 해야겠다. 일요일인 11일 역시 비 소식 없이 12~20℃의 기온이 예상된다.

비 소식이 없으면서 제주 산지와 동부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다.

다. 특보는 오는 12일 비가 오기 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겠다.

한편 해상에서는 9일 오후부터 제주도 전 해상과 남해서부해상에 바람이 초속 8-14m로 강하게 불고, 물결도 1-3m로 높게 이는 곳이 있겠다. 향해나 조업하는 선박, 갯바위 낚시, 해상 레저 활동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제주특별법 개정 TF회의 비공개 일관

도민 공감대 형성·역량 결집 등 한계 우려  
 "협의내용·진행과정 알려 도민의견 수렴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해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각 분야별 TF회의를 비공개로 일관해 도민 공감대 형성과 역량 결집에 한계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상반기까지 각 분야별로 TF를 진행해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오는 6월까지 월 1회 이상 분야별 TF 회의를 진행해 도민 복리증진과 제주 미래성장을 위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발굴·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 제주특별법자치행정·입법분야 태스크포스팀(TF)은 8일 실무대여성문화센터 3층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

의에서는 ▷국유재산(일반재산) 소유권 이양 ▷포괄적 국가 기능 이양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정립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강주영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재욱 지방분권 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소순창 건국대학교 교수, 윤원수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참석했다.

하지만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돼 전문가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고 논의됐는지 들여다보기 불가능하다.

전 도의원 A씨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자치행정분야 내용이 궁금해서 회의 현장에 가보고 했는데 비공개란 말을 들었다"며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몇몇 사람들만 앉아서 만드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모든 내용들을 테이블 위에 다 올려놓고 진행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해 폭 넓게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회의 공개 시 미리 찬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비공개로 진행했다"며 "각 TF별로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되고 나서 정리가 된 후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대포기자 bigroad@ihalla.com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잠정 중단

접종 후 혈전증 진단 사례 국내외서 잇따라

정부, 주말 재개 여부 발표

제주지역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잠정 중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예정된 특수학교 교육·보육 종사자와 유치원·초중등 보건교사, 어린이집 장애아 전문 교직원·간호인력 등 3040명에 대한 AZ 백신 접종을 잠정 연기한다

고 밝혔다.  
 또 제주자치도 보건당국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 1차 대응요원 등 60세 미만 접종 대상자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접종을 보류했다.  
 아울러 9일로 예정됐던 교정시설 종사자 349명, 취약시설 및 장애인 시설 입소자 1443명에 대한 AZ 백신 접종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제주시 예방접종센터에서 이뤄지는 화이자 백신 접종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앞서 유럽의약품청(EMA)은 AZ 백신과 혈전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또 국내에서도 AZ 백신 접종 후 혈전증 진단을 받은 사례가 3건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주말쯤 '혈전' 논란을 빚는 AZ 백신에 대한 접종 재개 여부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정은경 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백신 접종에서 '안전성', '과학적 근거'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겠다"면서 "예방적 차원에서 접종을 중단한 만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과학적이고 안전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제주 코로나19 확진 645(3) / 백신 접종 1차 14,510(800), 2차 1,805(579)  
 8일 18시 기준

# 4·19혁명 61주년기념

## 4·19혁명 국민문화제 2021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 4·19혁명 국민문화제 2021

위원장 **강영석**  
 (4·19혁명공로자회 회장)

**국민문화제위원**

- 박종구(4·19민주혁명회 회장)
- 정중섭(4·19혁명희생자유족회 회장)
- 박영식(4·19혁명공로자회 부회장)
- 백운호(4·19혁명공로자회 사무총장)
- 신광성(4·19혁명공로자회 이사)
- 박원준(4·19민주혁명회 부회장)
- 정원양(4·19민주혁명회 이사)
- 이길홍(4·19민주혁명회 감사)
- 황종열(4·19혁명희생자유족회 감사)
- 강용식(강서구 주민자치위원)
- 정관희((전)국가보훈처 기념사업과장)
- 류덕희((주)경동제약 회장)
- 김주현(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장)
- 엄홍길(엄홍길 휴먼재단 이사)
- 강대형(강북문화재단 상임이사)
- 사무국장 김선담(4·19혁명공로자회)

**주요행사**

- 4월 10일(토) 전국학생 영어스피치 대회 / 강북구청기원실(13시)
- 4월 10일(토) 전국학생 그림그리기 및 글짓기대회 / 국립4·19민주묘지(14시)
- 4월 11일(일) 전국대학생 토론대회(결선) / 강북문화예술회관(13시)
- 4월 11일(일) 엄홍길대장과 함께하는 순례길 트래킹 / 북산둘레길(14시)
- 4월 15일(목) 국제학술회의 / 한신대학교 예배당(14시)
- 4월 18일(일) 공식행사 및 락(樂)뮤직페스티벌 / 강북문화예술회관(19시)
- 4월 19일(월) 4·19혁명 기념식 / 국립4·19민주묘지(10시)

## 4·19혁명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정의를 구현시킨 학생·시민혁명이었다!!